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로동당에서 중시하는 다이아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새로운 다이아생산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에서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풀고 나에게 큰 힘을 준 공장로동계급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고, 정말 큰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다이아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다이아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다이아들과 새로 개발한 탄도로케트자행발사대차의 대형다이아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열의가 비껴있는 대형다이아들을 하나하나 살펴만져보시며 요란하다고, 볼수록 멋있고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놓았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무들이 대형다이아개발전투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은 그날부터 한시바삐 공장에 와보고싶었다고 하시면서 대형륜전기재생산



의 주체화, 국산화실현에서 큰 몫을 한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없던 대형다이아생산공정을 수입설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보장하여 짧은 기간에 혁명적으로 새로 꾸리고 주요물리 기계적성질이 수입산보다 훨씬 우수한 새형의 대형다이아를 훌륭히 만들어낸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본매와 일본새에서 류달리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 당중앙의 이름으로 깊이 머리숙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의 로동계급은 올해 계획된 각종 다이아생산투쟁과 새로 개발한 대형다이아생산투쟁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며 승리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나갈 때 이 세상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

천으로 증명해주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적전진이 가속화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다이아생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다이아공업발전추세에 맞게 생산공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자재보장대책을 원만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든든히 무장한 지식형의 인간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을 자체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그에 필요한 각종 다이아를 우리 힘과 기술,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압록강다이아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다이아생산기지로 전변시킬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쁘히 갖추며 공장안팎을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5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식의 대형다이아를 생산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땅 북변에 주체화, 현대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 나라 다이아공업의 본보기공장,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없을 대규모의 다이아생산기지를 세상이 보란듯이 꾸러놓음으로써 주체공업의 위력,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개건현대화를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나라 륜전기재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가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개건현대화와 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관철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지난해 11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와 시공, 자재,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치열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감자가루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연건축면적 2만 7,920여㎡이고 년간생산능력이 4,000t에 달하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은 감자가루생산건물, 감자가공품생산건물, 2만급감자저장고, 보조건물, 로동자합숙소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아담하고 정갈한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생산건물들이 산뜻하면서도 깨끗하여 걸보기에 도 식료가공기지라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산업시설맛이 나게 건설을 잘했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종합조종실, 감자가루직장, 제품전시실, 문화후생시설, 과학기술보급실, 감자저장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생산공정들과 운영설비들을 감시, 측정 및 조정하고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를 잘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원료투입, 탈피, 세척, 선별, 절편, 더



운물처리, 랭각, 익히기, 건조, 제분, 포장에 이르기까지 가루생산공정이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되였는데 현대화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을 격폐시킨 유리벽사이에 위생통과 복도를 조성하여 생산자들이 그곳을 거쳐야만 현장에 들어갈수 있게 한것도 마음에 든다고, 특색있다고, 무균화, 무진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제품포장도 팬찮게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공장에 여러가지 감자가공품생산설비들을 추가적으로 더 놓아 감자를 가지고 가루생산은 물론 영양쌀, 편튀기, 짜배기, 국수, 우동을 비롯한 더 많은 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삼지연군의 특산물로 온 나라에 소문나게 하라고 하시였다.

문화후생시설들의 시공도 손색없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어 좋아하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에게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어야 그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한 공장애를 새겨주고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낳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세계적인 감자가공공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준비하도록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감자보관에 적합한 온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저장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자동적채기와 벨트콘베아를 리용하여 생산현장까지 감자를 운반하고있는데 무인화가 실현된 공장, 로력절약형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종업원살림집들의 걸모양이 멋있다고, 도시의 주택지구를 방불케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과 살림집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으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이 생산정상화의 불길속에 감자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실지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공장으로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자가공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인민들이 좋아하는 가공품의 가지수를 부단히 늘어나갈데 대한 문제, 생산공정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 위생문화적환경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한알의 감자도 허실없이 제

때에 가공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점검 및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부인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감자가공품들이 팡팡 생산되면 량강땅을 찾아오는 혁명진적지답사자들과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훌륭히 건설한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감자가루를 생산하면 실수률을 25%까지 올릴수 있다고, 농마를 생산할 때보다 실수률이 2배이상이라고, 결국 감자생산량을 지금의 2배로 끌어올리는것과 맞먹으며 감자가루로 가공품을 만들면 구수한 감자맛을 그대로 살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감자산지인 삼지연군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세운 감자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좋고 흐뭇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은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희한하고 멋있는 공장, 우리 나라 감자가공공업의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 현대적인 감자가루생산공장을 이미전에 건설하여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더욱 윤택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사설 **절세위인의 불멸의 대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지난 11월 29일 진행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온 행성을 진감시키고 있다.

지금 남조선 언론들과 외신들은 공화국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북핵무력완성 선언》, 《북미싸일력대 최강》, 《정상고도라면 위성 탄타격가능》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시험발사 성공에 완전히 흥분백산한 미국의 전쟁광들도 미본토전역은 물론 《세계 그 어느곳도 가능한 미싸일발사》라고 비명을 울리고 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의 경이적인 사변으로 하여 공화국이 병진의 기치높이 천신만고를 다하며 줄기차게 전진시켜 온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위업이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으며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성공은 날강도 미제가 사상처음으로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까지 투입하여 반공화국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악명높은 핵전략자산들로 조선반도를 겹겹이 에워싸고있는 일촉즉발의 첨예

한 시기에 이룩된 통쾌한 대승리, 주체의 핵강국건설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특기할 대승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나리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입니다.》

공화국의 전략무기의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공화국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은 자기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강국,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것이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민족자주리념,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이 안아온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위업을 실현해 주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며 미제의 횡포무도한 핵위협공갈을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기 위하여 자위적핵무력건설의 험난한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쳐오시었다.

몸소 총설계가, 결사대장, 정치위원이 되시어 삼복의 무더위도, 얼음의 강추위도 가림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진사들과 위험천만한 화선에 함께 계시며 천재적인 예지로 성공의 열쇠를 안겨주시고 애국의 넋과 열과 정을 다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인간적인 헌신과 로고속에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와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비롯한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확고히 도달한 가장 위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이 탄생하게 되었다.

참으로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기어이 완성하시어 백수십년동안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국의 침략위협을 영원히 끝장내고 조국의 안전과 민족번영을 위한 강력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적대세력들의 포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솟아오른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는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정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자주적인민들의 힘찬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온 겨레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적금지위와 행운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만들어야 할 민족의 대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마음대로 침해할수 없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힘으로 나

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해나가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우리 겨레의 세기적인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에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이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온 민족은 조선의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다칠수 없는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대업적을 길이 전하며 그이의 통일애국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높이 받들어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대조선 제재압살광풍을 단호히 깃부셔 버려야 한다.

주체조선의 핵무력강화에 걸 걸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강력한 제재압박》이니 뭐니 하는 고리타분한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반공화국제재압살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모진 광풍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 꺾어보려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최근에도

230여대의 항공기와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여놓고 북침전쟁열을 고취해나섰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를 열핵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에 적극 편승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통째로 내어주는 매국배족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압박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안팎의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준엄한 철추를 가해야 한다.

전설적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민족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신심드높이 반미최후대결전의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영웅

행성이 요동치고 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 로켓강국위업의 실현을 선언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소식이 온 우주를 짝 채우고 세계가 다시금 조선을 주시해보고 있다.

오늘의 특기할 사변은 반만년민족사에 국력을 최대로 강화시켜준 민족의 대경사, 기쁨중의 기쁨이다. 조선의 존엄과 힘은 세계만방에 떨쳐지고 평화와 안정, 부강번영의 천만년 밝은 미래가 활짝 펼쳐졌다.

령토가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더우기 적대세력들의 류레없이 악랄한 제재압박위협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이 땅의 사변인 동시에 세계사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수수천년 바라던 민족의 강국념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는 탁월한 령도자, 은인중의 은인이시다.

국력중의 국력은 군력이다. 군력이 강해야 나라도 지키고 민족의 번영을 안아올수 있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령토가 외세의 각축전장으로 화하고 중당에는 바다 건너의 오랑캐무리들에게 나라마저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던 조선이었다.

나라를 잃고 외세의 노예가 되어 성과 이룸마저 빼앗긴채 길가의 락엽처럼 짓밟히며 수난에 몸부림칠 때 이 땅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는 《약소국》의 불쌍한 처지를 눈물겹게 한탄하고 피눈물을 뿌리었던가.

세기는 바뀌었어도 힘이 약하면 침략의 구두발에 짓밟히고 굴종의 수치스러운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는것이 변하지 않은 세상의 리치이고 행성의 어두운 현실로 되고 있다.

자기의 존엄과 운명을 수호하는 힘은 다른 그 어디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다.

이것을 가슴속깊이 진리로

새겨안으시고 일찍부터 민족자주의 기치를 추켜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었고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쌓으신 업적을 계승하고 뜻과 위업을 받들어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조선을 대륙간탄도로켓과 수소탄을 틀어쥔 핵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시는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국력은 우주에 닿았고 그래서 겨레의 긍지와 기쁨은 강산에 차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강위력한 핵무력으로 조선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미국의 핵위협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민족운명수호와 후손만대의 영원한 평화번영을 위한 넓은 앞길을 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대영웅이시다.

미국은 백수십년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오고 우리 민족에게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강요한 제국주의강도배,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미국은 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세기를 이어 적대시압살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려왔다.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들을 전개하고 해마다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침략전쟁위협을 끊임없이 몰아왔다. 이로 하여 이 땅에서는 어느 하루도 전쟁위협이 가지어 진적이 없고 조선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이룩함으로써 세기를 이어오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은 수치스러운 파산을 면치못하게 되었고 범죄적인 대조선핵위협은 영원히 종식되게 되었다.

조선의 강위력한 힘앞에 미국이 전전공공하고있는 현실은 반제반미대결전의 진두에서 서시어 미국을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아넣으신 백두령장 김정은 원수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선택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수 있는 군사적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던 그 선언을 너무도 짧은 기간에 현실의 기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천출명장에 대한 온 겨레와 세인의 경탄과 매혹은 끝이 없다.

악의 제국 미국을 다스리시고 조선반도와 행성의 밝은 앞길을 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기의 존엄과 국력을 떨치며 더욱 승승장구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 탁월한 병진로선의 승리

지난 1일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에 이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축하하는 축포가 터져올랐다.

황홀한 불의 세계를 바라보는 군대와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미국의 세기를 이어오는 대조선침략과 핵위협이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와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펼쳐주기 위하여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고마움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하시었다.

자나깨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병진의 길은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의 영웅사시적행로였다.

몸소 로켓개발의 총설계가, 결사대장, 정치위원이 되시어 삼복의 무더위도, 엄동의

강추위도 가림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흠뻑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스스럼없이 찾고찾으시며 새형의 첩단로켓개발의 초행길, 국가핵무력완성의 생눈길을 한치한치 열어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체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로 나가도록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다.

그 길에는 실패에서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기발한 과학적착상과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잊지 못할 사연들도 있었고 동터오는 새날을 맞으시며 전략탄도로켓들의 시험발사를 지도해주시던 불문불휴의 헌신의 나날도 있었다.

《3.18혁명》의 력사적인 그 날에는 주체적인 로켓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가 너무도 기쁘시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열싸안아주시고 몸소 자신의 등에 업어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고금동서 그 어느 나라 력사의 갈피에도 새겨진적이 없는 그 사랑, 그 믿음에 떠받들리며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며 민족사적대경사들이 련이어 터져올랐다.

《7.4혁명》, 7.28의 기적적

승리, 9월 3일의 장쾌한 수소탄폭음에 이어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확고히 도달한 가장 위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이 탄생하고 9축자행발사대차의 위력한 성능이 파시된 《11월대사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 력사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게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최근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로동당이 선택한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며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하시었다.

절세의 위인께서 선언하시었다 뜻이 미국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속에서도 영웅적조선인민은 또다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 천신만고하시며 자위의 핵보검을 마련해주시어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국과 인민을 감히 건드리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종국적멸망을 선고하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의 실현이라는 특대사변을 안아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록하신 영웅적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적대세력들의 포악무도한 제재압박속에서도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신화는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정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자주적인민들의 힘찬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인 공화국의 핵전략무기들은 나라와 인민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오늘 의 값비싼 승리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것이며 병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최후승리의 축포를 기어이 터쳐올리게 될 것이다.

김금희

## 친히 연구종자를 주시고

주체의 로켓강국을 건설하시는 나날에

지난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연구부문에 적합성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귀같은 개별적목표들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탄도로켓을 개발하도록 할데 대한 연구종자를 주시고 여러차례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었다. 해당부문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을 개발하였다.

지난 5월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그날 시험발사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탄도로켓의 성공적시험발사를 높이 평가하시고 이번 5월 한달기간에만도 우리는 주체조선의 국방공업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전략적위업과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다그친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탄생하여 군사강국, 로켓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이 비할바없이 향상되었다고 하시었다. 자신께서 종자를 주시고 연구개발을 지도하시였지만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성과와 공로로 높이 치하하시며 만족해하신것이였다.

## 훈련을 통하여 실전에 준비되도록

지난 3월에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발사훈련때였다. 동시발사된 4발의 탄도로켓들이 마치 항공교예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함모양새로 날아올라 동쪽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기었다.

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통하여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적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소멸할수 있게 준비된 화성포병부대들의 위력을 과시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며 당중앙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주각에 화성포마다 멸적의 불꽃기를 뿜을수 있게 기동준비, 진지준비, 기술준비, 타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본사기자

# 자 강 력 의 력 사 와 전 통

실전에서 기발처럼 나뭇길 표내였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연길폭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당부를 남기시었다. 항일의 혈로를 헤쳐나가는 나날에 일제에게서 무기를 빼앗아내는것과 함께 자체로 병기창을 꾸려 무장을 해결하도록 하신 주석님의 자력독립의 무장투쟁사를 전하는 《연길폭탄》이다. 한때 간도사람들은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하나 건설할것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 원조를 요청하였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시기절박하고 안타까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랭담하게 대하였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랭대를 산 간도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처지에서 오직 믿을것은 자기 힘뿐이라는 것을 절감하신 주석님께서 자체의 실정에 맞는 화약제조법으로 작탄을 만들것을 결심하시고 유격대원들을 작탄제작에 불러일으키시었다. 하여 유

격대원들은 마치와 줄칼, 풍구밖에 없는 백두밀림에서 자기의 힘, 견인불발의 의지로 작탄을 만들게 되었다. 《연길폭탄》이란 이름은 연길일대에서 작탄벼락에 혼이 난 일제가 공포의 대명사로 지어부른 것이었다.

자력독립의 기치아래 전개된 항일대전시기에 나온 《연길폭탄》은 자강력의 상징으로 력사에 기록되었다. 정규군의 지원도, 후방도 없는 필약한 환경과 조건에서 반일항전을 단행한것도 위대한것이이지만 혁명실천의 전 행정에서 자강력의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업적은 절세위인의 령도풍모의 출중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돌이켜보면 령 빈 국고와 장부밖에 없는 해방후의 어려운 조건에서 내세운 건당, 건국, 건군의 새 조선건설로선, 적대세력들이 100년이 걸려도 회복하지 못한다고 호언한 폐허우에서 태어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전후 세해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등 국가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웅대한 설계도가 제시되었었다. 그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다 자체의 힘,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자랑찬 현실로 되었다.

건축은 력사가 남긴 자욱이라는 말이 있다.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있는 모란봉극장이나 천리마동상, 남산재언덕우에 자리잡고있는 인민대학습당은 서로 다른 력사적시기가 남긴 자욱이지만 공화국이 걸어온 길, 자력자강력사의 큰 자욱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잘 알수 있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그 건축물들은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도 서로 다르다. 그러

나 하나의 공통성이 있다.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하여온 자력자강의 실천적증거물들이라는것이다. 불과 40여일동안에 건설된 모란봉극장은 자력으로 새 조선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닦으신 위대한 주석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시련과 난관은 종종첩첩이였지만 주석님께서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불사신의 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만남을 뚫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1960년대에 건립된 천리마동상은 지금도 시련에 굴복하여 넘어지지 않는 굳센 의지를 상징하며, 승리가 된다는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감회깊이 되새겨주고있다. 1980년대에 건설된 인민대학습당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승승장구할수록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신 위대한 주석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길이 전하는 또 하나의

력사적증거물이다. 위대한 주석님의 령도는 자기 힘을 믿고 만남을 헤쳐나가는것을 이 나라 천만군민의 생존과 투쟁의 방식으로, 체질로 되게 하였고 이 땅위에 강성변영의 만년토대를 쌓아올리게 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온넛을 함께 하신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시며 외래침략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와 봉쇄는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강요되고있지만 주석님께서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불사신의 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만남을 뚫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유훈이 깃들어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어려있는 자력자강의 기치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공화국의 위대한 동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자기의 힘으로 강성변영하는 국가를 건설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투쟁원칙이고 실천방식이다. 세포동판에 펼쳐진 5만여정보의 대초원도 자급자족의 구호밑에 축산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대규모축산기지이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 금성트랙도르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80hp 《천리마-804》호트랙도르,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질좋은 화장품들, 평양가방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도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만드는것이다. 자강력으로 자기에게 필요한것, 자기가 마음먹은것을 다 해결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부강변영을 달가와 하지 않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안달복통해하고있다. 《최대의 제재압박》도 통하지 않는 공화국의 자강력의 동음에 기겁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자강력을 강조하는것이 저들의 《제재압박》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있다. 황당무계한 꾀변이다.

공화국의 자력자강의 창조방식은 언제나 오늘이나 전 력사에 일관하게 판통되어있는 투쟁방식이고 전통이다.

나라와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자기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언젠가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환경생 자체의 힘에 의거하는 혁명원칙, 투쟁방식을 견지하시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전진하면 천하를 얻을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혁명도 할수 없고 살아갈수도 없다는것이 주석님의 정치신조였다.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여야 한다는 근본원칙은 위대한 주석님의 한생의 혁명



금성트랙도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새형의 트랙도르들과 자동차들





— 류원 신발공장을 찾아서 —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안겨주시려고

이런것을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는가. 얼마전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찾은 우리는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일신된 공장안팎을 돌아보며 시종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한쪽의 그림을 방불케 하는 생산건물이며 과학기술보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은 말할것도 없고 높은 경지에 올라선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과학화 수준도 볼수록 회한했다. 모든 생산 및 운영설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할수 있는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여러 생산공정들의 흐름 선화를 실현한것은 또 얼마나 긍지높은것인가. 우리의 만년 공장지배인은 《얼마전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부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운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때저는 물론이고 동행한 일군들도 눈곱이 짓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에게서 현대화정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두해전 1월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었다. 그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공장을 각종 운동신발과 종목별전문제육신발과 종목별전문제육신발과 년간 백수십만켤레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신발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지배인으로부터 그날의 사연을 전해들으며 재단직장에 들어서니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지배인은 이 설비들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

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이 설비들을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고 한다. 우리는 제화직장에도 들렀다. 《제화직장에 들리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생산한 축구화를 신수들이 좋아한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였으면 그이께서 한켤레의 신발발들을 년간 백수십만켤레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신발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언제나 어디서나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절세위인의 다심한 사랑은 끝이 없었다. 신발포장팩을 보실 때에는 전문가들도 미처 생 각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어느 한 신

발을 보실 때에는 바다창모서리의 결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일깨워주시는 이야기, 신발을 사람들의 나이별에 따르는 기호와 심리에 맞게 만들데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시것을 비롯하여 그의 현지지도자욱마다에 인민사랑이 뜨겁게 스며여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다.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 모시어 인민의 재부는 날로 늘어나고 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본사기자 흥 범 식

제품전시실과 새 제품개발체계

제품전시실에 들어선 우리는 놀랐다. 근 200종의 각종 운동신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던것이다. 추구하며 롱구화, 룡상화와 같은 각종 운동신들은 그 종류와 형태, 색깔이 다종다양하면서도 질 또한 대단히 높았다. 동행한 일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를 도안실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도안가, 설계가들이 새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벌리고있었다. 그들은 신발결본들과 자료집을 보면서 체계적인 안목을 넓혀나가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체육신발들의 기술적 및 구조적특성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인민들의 체질적특성

에 맞게 종목별신발들을 더 훌륭히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공장일군의 말에 의하면 도안실에서 도안이 창작되면 설계가들은 3차원 신발설계프로그램을 리용하여 새 제품설계를 완성하는데 종전에 비해 많은 로력과 시간이 단축된다는것이였다. 이렇게 완성된 설계에 기초하여 시작품작업반에서 결본품생산이 신속히 진행된다. 시작품작업반에는 아무리 복잡한 결본품도 단시간에 생산할수 있다는것이다. 특히 과학기술보급실과 기술과, 도안실과 기술준비실, 실험실 그리고 새 제품을 즉시 결본으로 만들어내는 시작품작업반이 한창사에 집중되어있는것은 새 제품개발에 매우 유리하였다. 이렇게 정연한 새 제품개발체계에 의해 공장에서는 한주일에 몇개씩 결본품을 생산해내고있는데 어떤 때에는 아침출근 길에 도안가가 새로운 형

태의 신발을 착상한것이 도안창작으로부터 새 제품으로 등록하기까지 하루밖에 안걸리는 경우도 있다는것이였다. 놀랄만 한 개발속도가 아닐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신발도안이 선행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정보화, 자동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이런 개발속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신발공업부문의 세계적발전 추세와 최신과학기술도 터득하고 자기의 착상을 즉시 실현해볼수 있는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류원신발공장. 우리는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박 철 남



공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에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라는 구호가 안겨왔다. 동행한 공장의 일군이 저 구호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구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재단직장 인쇄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현장에서는 몇 명 안되는 로동자들이 기대들앞에서 각종 문양의 질 좋은 갑피들을 생산하고있었다. 현대적인 설비들로 생산공정을 꾸려놓으니 적은 로력으로 질 좋은 갑피를 팡팡 생산할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한영일작업반장은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레이자 재단기기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의의 모양을 가진 갑

피를 비롯한 부분품들을 재단하는 레이자재단기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첨단설비이다. 갑피우에 각종 문양을 인쇄하는 체본인쇄기는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 신발기계공장의 연구집단과 로동자들이 합심하여

짜내지만 종전에는 적지 않은 로력이 동원되어 갑피를 재봉하였다고 한다. 지난 시기 같으면 수십명이 해야 할 일을 한명의 조작공이 할수 있게 현대화한 자수기일에서도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내달 산적열의를 잘 알수 있었다. 동행한 일군은 이번엔 생산공정을 일신하는 과정에 세계를 보는 시야는 더욱 넓어졌다고 하면서 《류원》상표를 단 질 좋은 운동신으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자기들의 굳은 결심을 피력하였다. 세계와 당당히! 이것은 그만인 아닌 이 공장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의를 확신하며 우리는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 철

류원신발공장의 현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가 도입된것이다.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많아지는데 맞게 늘어난 전력수요를 국가전력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해결하였다. 국가과학원에서 개발한 400kW능력의 태양발전체계를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원만히 풀었다. 이 태양발전체계에서 생산된 전기는 생산과 식당영, 조명 등 경영활동뿐 아니라 공장락아소의 난방보장에도 효과있게 리용되고있으며 일부는 국가전력망에도 넣어준다. 공장에서는 태양열물가

실리가 큰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

열체계도 받아들여 목욕탕과 수영장, 락아소의 물놀이장에 필요한 더운물을 충분히 보장하고있다. 공장에 새로 받아들인 랭난방체계도 매우 독특한 에네르기절약형체계이다. 이 기술은 물론천만 있으면 어디서나 받아들일수 있는 분산형수원랭난방체계로서 효율이 높고 도입 원가가 적으며 집중식열 랭난방체계에 비해 운영에 품이 적게 들고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한다. 공장에서는 청사들에 단열창문들을 설치하여 열손실을 극력 줄일수 있게 하고 생산현장에 성능이 높은 송배풍기를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훨씬 개선하였다. 무토양재배방법을 받아

들인 태양열옥상온실을 건설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서 많은 덕을 보고있으며 물연화소독공정을 확립하여 룡색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신발공업부문에서 손로동을 피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통합생산체계 확립이 어렵다던 기존관념을 깨뜨리고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연계밀에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하였다. 기업자원계획화체계, 생산관리체계와 자동조종체계로 구성되어있는 통합생산체계를 리용하여 물론 동력 및 랭난방체

계의 조종과 설비들의 가동상태, 제품의 생산과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산 전과정을 실시간적으로 조종하고 생산과 품질의 최량화를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에서는 이와 함께 생산한 모든 제품들의 정보를 자로기지로 구축하고 나이별, 계층별에 따르는 구매자들의 수요를 분석하여 월별, 품종별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경영에측까지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그 운영을 짜고들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보다 큰 개선을 가져오고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세계와 광강히!



#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대결망동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얼마전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인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창립 72돐을 맞는 조선직업총동맹에 축전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퇴당국의 반통일적망동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피퇴통일부는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조선직업총동맹 앞으로 보내려는 축전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전민족대회는 《정치적인 행사》이므로 전문에서 이를 삭제할것을 강박하였다.

이에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전민족대회 개최는 북과 남, 해외가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수정할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해나서자 피퇴통일부것들은 《직총창립행사에 축전을 보내는것도 정치적행위》라는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쫓쳐대며 축전을 보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대결적주태를 부리었다.

피퇴당국의 이러한 책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녘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동족사이의 혈연적뉴대마저 끊어놓으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위이다.

지난 6.15시대에는 북과 남의 각계층 단체들이 민족공동의 기념일과 단체창립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서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련대련합을 강화해나갔으며 이는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저속적인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제의 극악한 반공화국제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의 광기어린 동족대결망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사상류례없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각계층 단체들사이의 련대활동을 위한 서신거래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현 피퇴집권당국이

말끝마다 그 무슨 《련락통로 개설》이니, 《민간교류추진》이니 하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한갓 대결적본심을 가리우고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로동자단체들의 축전에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의 명칭이 들어있다고 걸고들것이다.

피퇴당국이 전민족대회명칭까지 감히 걸고들며 축전발송을 방해한것은 북남관계를 당국의 독점물로 만들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기도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전민족대회개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문제는 결코 당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지지하는 민족구성원 누구나 관심하고 주인이 되어 나서서 풀어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문제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는 하지만 보수역적패당의 파썸독재시기와 달라진것이 없으며 앞에서는 《교류》를 제창하고 뒤에서는 북남 각계층 단체들의 련대활동을 극력 방해하는 극악하고 교활한 수법은 선행 《정권》들과 다를바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초불민심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을 추구해온 부패한 구태세력을 청산할뿐아니라 반통일적이고 대결적인 구시대적사고와 관념까지 뿌리채 들어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최악이 덧쌓일수록 그 대가는 더욱 처절하고 비참해질수 밖에 없다.

추악한 외세굴종과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돌아치는 피퇴당국은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제106(2017)년 12월 7일  
평 양

# 남조선 각계 층이 량심수들의 전원석방을 요구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 층이 5일 감옥에 갇혀있는 량심수들을 전원 석방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겨울 광장을 밝힌것 초불의 명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것이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적폐는 계속되고있으며 그 하나가 바로 량심수들이 여

서 시민사회계, 종교계,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인사 3194명의 이름으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적폐청산을 약속한 《정부》라면 마땅히 적폐의 피해자인 량심수들의 석방을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량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서울에서 시국선언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인 량심수석방이 올해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사회계, 종교계,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인사 3194명의 이름으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정부》가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석방을 결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대성공에 흥비백산한 미국정객들속에 서 그 무슨 《군사적대응》에 대한 악청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늘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앞장서서 《그것을 처리할것이다.》고 고아대는가 하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조선은 완전히 파괴될것》이라는 폭언을 늘어놓았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트럼프의 수하들개들도 《북조선과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고아대는가 하면 미상원의 공화당소속 의원들은 《북조선의 핵공격을 막자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의회가 대조선 선제공격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쫓치면서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전적망언들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다.

트럼프제거리들의 이러한 망발들은 조미핵대결전에서 참패의 고배를 마

시게 된 핵전쟁미치광이들의 단말마적인 발작중세가 아닐수 없다.

지금 미군부와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이 미국본토전역을 강타할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라는데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도 발편잠을 잘수 없게 된 저들의 가련한 운명에 대해 한탄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트럼프제거리들이 조금이라도 리성이 있다면 이 한숨소리들을 귀담아듣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값비싼 대가로 이룩한 력사적대업실현선포가 무엇의 의미하는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아무리속이 부질부질 꿩도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현실을 싫든 좋든 감수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것이 분별있는 처사로 된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전쟁폭언을 거리낌없이 내뱉는가 하면 핵항포합타격단들과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들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 끌어들이며 북침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트럼프와 몇몇 호전광들이 객기어린 망발을 쫓쳐대고 핵전략자산들과 공중비적

들을 대거 들이밀어 전쟁광기를 부린다고 하여 놀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이제 가질것은 다 가진 공화국에 대한 가중스러운 군사적위협소동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미국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속에 허덕이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줄뿐이다. 미국은 분별을 잃고 군사적대응에 매달렸었다 예상할수 없는 보다 강력한 대응수치에 직면하여 더욱 수습할수 없는 처지에 빠져들고 바라는것은 아무것도 얻을수 없게 된다는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겁에 질린 개가 더 미친듯이 짖어댄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리치이다. 트럼프제거리들이 최근 지껄여대는 대조선군사적공격망발들은 궁지에 몰린 가련한 패자의 허장성세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이 《아》하면 세계가 같이 《아》하고 떠들던 때는 지나가고있으며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배격해나서는것은 대세의 흐름으로 되어가고있다.

미국정객들은 이제라도 현실을 리성적으로 판단하고 더 큰 수치와 파멸을 당하기 전에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은 그대로 온 행성을 미충유의 충격으로 뒤흔들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압박과 살인적인 제재소동이 극도에 이르는 속에서도 공화국이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9월 3일의 장쾌한 수 소탄폭음에 이어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을 탄생시킨 《11월대사변》을 이룩한것은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의 력사에 종공갈과 위협의 통쾌한 승리가 아닐수 없다.

령토도 작고 인구도 작은 공화국이 세계면전에서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을 호되게 답사기는 패거리를 두고 세계는 찬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속에 아우성치고있다.

가관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화국의 《11월대사변》을 두고 그것을 못마땅해하며 시비중상하는자들이 민족내부에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바로 그러하다.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성공으로 대충격과 절망에 빠져 《규탄의안》을 발표한다 어쩔나 하며 분주함을 피우는가 하면 미일상전들과 전공갈과 위협의 력사에 종공갈과 위협의 통쾌한 승리가 아닐수 없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실현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에 얼흔이 빠지지 못하는 부질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이 핵무력을 강화하는것은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의 범죄적인 핵공갈과 침략위협으로부터 건히 수호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노력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 세계전쟁력사를 돌이켜보면 핵을 가진 나라들사이의 전쟁은 없었다.

핵무기가 없을 때에도 공화국의 일심단결과 자위의 군력에 쫓겨미국의 핵억제력까지 갖춘 조선을 탐방위태세에 의한 도발억제를 어쩔수 없게 되었다.

국가핵무력완성에 흥비백산한 미국은 지금 추종세력들을 돌격대로 내몰아 저들의 수치와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사적대경사앞에서 기빠하지는 못할망정 아무재기를 치

며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발광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추태의 발로이다.

남조선의 안전같은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광기에 말려들어 련합훈련과 제재, 봉쇄소동과 같은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려야 할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공화국은 정부성명을 통해 자기의 리의를 침해하지 않는 한 새해의 대륙간탄도로켓이 그 어떤 나라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이미 엄숙히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가 대세로 되고있는 오늘 친미사대로 차레질것은 비참한 운명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행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해상봉쇄가 초래할것은...

대로 높이면서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트럼프의 정신병적인 광태와 그것을 안받침할 미군부호전광들의 대조선 공격기도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3개의 핵항포합타격단이 동시에 조선반도수역에 전개되고 핵잠수함과 이지스수추함들을 포함한 각종 전투함선들이 아강의 극악높은 특수작전무력까지 동원되어 화약내질은 핵전쟁불장난이 감행되었다.

지금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히스레리

적인 망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에 대접경으로 몰아가고있다.

미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과 미의회의 《대조선 강경과》들이 저마끔 나서서 대조선해상봉쇄를 떠들어대는가 하면 미국 무성은 유엔을 도용한 반공화국 《제재결의》의 문구까지 수정하여 해상봉쇄의 법적명분을 마련해보려 하고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해상봉쇄책동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부정하고 관폭하게 침해하는 가장 폭발전야의 조선반도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극히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천만한 도발적망동이다.

상과 공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련속 벌려놓은 미국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상봉쇄까지 운운하며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다.

해상봉쇄는 전시에나 볼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정세를 《통제불능》의 파국상태로,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극악무도한 전범행위이다.

수많은 나라들 지어 미국의 손아래동맹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남조선마저

그에 몸을 사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실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주범, 세계평화와 안전의 가장 흉악한 파괴자가 다름아닌 미국이며 트럼프제거리들의 대조선제압살책동이야말로 온 세계의 규탄을 받을 특대범죄행위라 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운운하며 공화국을 놀래우고 그 무엇을 이루어보려 하지만 그따위 허세에 놀랄 공화국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는 마땅히 그에 따른 대응을 불러오기마련이다.

미국은 해상봉쇄기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자그마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공화국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자위적대응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 《참수작전》 하려다가 재앙의 불바다가 된다

남조선당국이 날로 포괄화되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편승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어느 한 특수전부대훈련장에서 유사시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작전 무려단》이라는것을 편성하였다. 올해초 《국방부업무계획》이라는에서 《북전쟁지휘부제거》를 위한 《특수임무 무려단》의 편성을 2년 앞당겨 올해중에 끝낼것이라고 공언한 남조선군부가 끝내 그것을 조작한것이다. 이번에 조직된 《특수임무 무려단》은 미해군특수부대 《네이비 셀》 6팀(일명 《데브그루》)을 본딴것으로서 남조선특수전사령부 산하 1개 편대를 1,000여 명규모로 늘이고 특수작전수송직승기, 폭파장비, 특수살인무기 등과 같은 장비들을 보강해 개편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특수임무 무려단》이 《한국형 3축타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서 유사시 《북지도부제거》를 주되는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공화국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

무기》사용징후 등을 포착하면 그 즉시 《참수작전》을 실행할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본격적인 실전훈련에 진입하였다. 동족압살야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특수임무 무려단》을 조직하며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남조선당국의 극악무도한 범죄적망동은 공화국에 대해 가장 비렬하고 악랄한 도발이며 용납 못할 특대형테러야망의 발로이다. 이것은 그대로 공화국의 천만군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으며 분별없이 날뛰는 도발자들을 당장 무자비하게 징벌할 복수의 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 시기 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노린 각종 특대형범죄행위를 수없이 감행한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리성마저 완전히 훼손된 미친개무리의 극악무도한 도발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던 과거 보수 《정

권》때에도 없었던 극악한 전문살인악당부대까지 버젓이 만들어냄으로써 이전의 특대형테러범죄를 훨씬 통가하고있다. 그만큼 남조선당국의 복침전쟁광기는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입으로는 《대화》와 《평화》에 대해 넘볼처럼 외위대지만 속에는 동족압살을 노린 시퍼런 칼을 품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가소로운것은 남조선당국이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간 못하고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의 돌격에서도 하고싶은것을 다 하고 마음먹은것을 다 가지였으며 최후승리의 북소리높이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고 있는 공화국이다. 이번에 공화국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의 시험발사에 완전성공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켓강국 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전략

적지위는 더욱 높이 올라서게 되었다. 세상을 놀래우는 공화국의 위력, 공화국의 속도와, 공화국의 기상앞에 적대세력들속에서도 저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것이라는 맥 빠진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곤장메고 매맞으러 가는 미련듯이처럼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상전에게 매여달리면서 제 무덤을 계속 파고 있다. 하늘에서 태양을 끌어내리겠다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것은 없다. 그가 누구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추호에서도 하고싶은것을 다 하고 마음먹은것을 다 가지였으며 최후승리의 북소리높이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고 있는 공화국이다. 이번에 공화국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의 시험발사에 완전성공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켓강국 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전략

## 제 주안점 대미군 동맹의 파고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사상 최대규모로 벌리었다. 여기에는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작전지대에 전개되어있는 미공군의 5, 7, 11, 12항공군, 해병대 및 해군병력과 핵전략 폭격기 《B-1B》, 스텔스전투기들인 《F-22A》, 《F-35A》, 《F-35B》, 전자장비기 《EA-18G》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 140여대, 남조선공군의 전체 병력과 비행기 90여대를 포함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었다. 특히 미국은 첨단스텔스전투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공화국의 국가지도부와 중요핵심시설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초정밀타격훈련을 실천과 같이 강도높게 벌리였으며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작전 계획 5015》에 따라 훈련에 동원된 공중비행기들에게 공화국의 주요

목표 700여개를 동시에 타격하기 위한 《공중 임무명령서》까지 하달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번 연합공중훈련이 《공중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첨단 비행대들이 투입되는 《사상초유의 타격행동》으로서 《북에 대한 최대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구름이 짙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미국이 얼마전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동원한 고강도연합해상훈련을 통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침략전쟁수행철차를 숙달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핵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대대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한 사실은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기어이 들뜨우려는 미국의 책동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도에 달하고있는 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도발광기로 하여 지

금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도발은 기정사실화되고 그 발발위험이 각일각 가까와오고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안정을 짓밟는 흉악한 침략자, 도발자가 다름아닌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고있으며 공화국이 병진로선의 불변침로를 따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것이 천만민을 앳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명심해야 한다. 제국을 멸 모르고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비떼 같은 비행대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다놓고 허세를 부리며 공갈과 위협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고 망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다. 최상의 경지에 이른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없이 날뛰는 부나비떼에게 차레질것은 비참한 죽음뿐이다. 라 영 진

## 《개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얼마전 남조선의 《국정원》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 또는 폐지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종전의 《국내보안》, 《대공》, 《대정부전복》 등과 관련된것은 제외하고 공화국과 외국관련 정보만을 다루며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독소조항인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지 못한다고 밝혀져있다고 한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이관하는것을 비롯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도 대폭 조정하는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지금 《국정원》은 이에 대해 《과거 부정적이며제를 탈피하고 적체와의 단절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고 새 출발할것처럼 광고하고있지만 력사와 전통이 보여주는것처럼 모략과 음모의 소굴 《국정원》의 본성은 달라질수 없다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평가

이다. 박정희역도에 의해 조작된 《중앙정보부》로부터 지금까지 력대로 민심의 저주와 비난에 직면할 때마다 《국정원》은 여러번 간판을 바꾸는 놀음을 벌려왔다. 하지만 그식이 장식이라고 체질화된 모략기구의 악습은 더욱더 교활해지고 악랄해졌을뿐 파쇼독재유지와 동족대결을 업으로 하는 그의 본성은 조금도 달라진적이 없다. 그것은 이번 개혁이 《대북정보수집능력》을 대폭 확대하는데 있다고 공언하면서 동족대결에 더욱 매달릴 기도를 드러내고있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적폐청산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지금 남조선민심이 요구하는것은 동족대결정체철회와 철저한 적폐청산이다. 초벌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남조선민심은 권력의 시녀이며 통일의 암적존재인 《국정원》을 당장 해체할때 대하여 시종일관 요구해왔다. 간판이나 바꾼다고 체질이 달라질수는 없기때문이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과 같은 형식상의 개혁놀음을 두고도 미친듯이 반발하는 보수패당의 광기는 더더욱 기가 막힌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패거리들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안보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좌익에 의한 국정원해체선언》이라고 떠들고있다. 따져놓고보면 보수패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반대하는것은 과거의 추악한 행적이 드러나는것이 두렵고 저들이 집권하는 경우 정보기관을 파쇼통치와 모략의 도구로 써먹기 힘들게 된다는 불안과 우려때문이다. 실지로 보수패당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북남수뇌상봉대화

록공개사건》, 《동까모사건》 등 집권기간 《국정원》을 내세워 저지른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털기 하자면 끝이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보수패당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리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등대고 어떻게 하나 《국정원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악해나서고있는것이다. 《정치보복》을 떠들며 적폐청산에 도전해나서고 있는 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썩어빠진 정치와 사회를 개혁할때 대한 초벌민심의 요구와 지향이 실현될수 없다. 파쇼통치와 공포의 저주받은 상징이며 동족대결의 소굴인 《국정원》을 간판이나 바꿀것이 아니라 보수패당과 함께 영패 매정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폭주각시, 하수인이 되어 반인민적 악정과 극악한 동족대결, 부정부패행위, 전대미문의 국정통락범죄에 가담해온 죄상이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감행된 남조선정보원의 특수활동비제공사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청와대문건조작사건은 물론 리명박패거리들이 저지른 남조선군사비사령부의 여론조작개입사건과 민화에술인요시찰명단사건, 《다스》 회사비밀자금사건을 비롯하여 련이 드러나는 각종 범죄사건들은 보수패당의 더러운 몸통이를 만천하에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권력파 재물, 극도의 부패와 향락에 미쳐 온갖 특대형범죄와 음모를 일삼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강그리 말살하고 파

쇼독재부활에 미쳐날뛰던 보수패당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폭주각시, 하수인이 되어 반인민적 악정과 극악한 동족대결, 부정부패행위, 전대미문의 국정통락범죄에 가담해온 죄상이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감행된 남조선정보원의 특수활동비제공사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청와대문건조작사건은 물론 리명박패거리들이 저지른 남조선군사비사령부의 여론조작개입사건과 민화에술인요시찰명단사건, 《다스》 회사비밀자금사건을 비롯하여 련이 드러나는 각종 범죄사건들은 보수패당의 더러운 몸통이를 만천하에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권력파 재물, 극도의 부패와 향락에 미쳐 온갖 특대형범죄와 음모를 일삼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강그리 말살하고 파

쇼독재부활에 미쳐날뛰던 보수패당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폭주각시, 하수인이 되어 반인민적 악정과 극악한 동족대결, 부정부패행위, 전대미문의 국정통락범죄에 가담해온 죄상이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감행된 남조선정보원의 특수활동비제공사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청와대문건조작사건은 물론 리명박패거리들이 저지른 남조선군사비사령부의 여론조작개입사건과 민화에술인요시찰명단사건, 《다스》 회사비밀자금사건을 비롯하여 련이 드러나는 각종 범죄사건들은 보수패당의 더러운 몸통이를 만천하에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권력파 재물, 극도의 부패와 향락에 미쳐 온갖 특대형범죄와 음모를 일삼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강그리 말살하고 파

쇼독재부활에 미쳐날뛰던 보수패당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폭주각시, 하수인이 되어 반인민적 악정과 극악한 동족대결, 부정부패행위, 전대미문의 국정통락범죄에 가담해온 죄상이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감행된 남조선정보원의 특수활동비제공사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청와대문건조작사건은 물론 리명박패거리들이 저지른 남조선군사비사령부의 여론조작개입사건과 민화에술인요시찰명단사건, 《다스》 회사비밀자금사건을 비롯하여 련이 드러나는 각종 범죄사건들은 보수패당의 더러운 몸통이를 만천하에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권력파 재물, 극도의 부패와 향락에 미쳐 온갖 특대형범죄와 음모를 일삼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강그리 말살하고 파

## 송사리의 경거망동

광이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망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송영무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후보로 내정되었을 때부터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괴〉라고 부르겠다》, 《북이 도발하면 전광석화처럼 끝내는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껄여왔으며 다음에는 《참수작전》과 공세적인 《대북군사작전개념》의 수립을 떠들어댄 극악한 친미호전분자이다. 럽대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치고 대결에 광분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송영무처럼 남조선장점미군의 영구주둔과 《북해상봉쇄》와 같은 극악

한 망언을 내뱉으며 망둥이처럼 높아만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떠드는 미국에는 삼살개처럼 아부하고 민족의 안전과 천만민마를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핵보검은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날뛰는 송영무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되고 천하역적이다. 더우며 장관병거지를 뒤집어쓴 다음에는 《참수작전》과 공세적인 《대북군사작전개념》의 수립을 떠들어댄 극악한 친미호전분자이다. 럽대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치고 대결에 광분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송영무처럼 남조선장점미군의 영구주둔과 《북해상봉쇄》와 같은 극악

한 망언을 내뱉으며 망둥이처럼 높아만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떠드는 미국에는 삼살개처럼 아부하고 민족의 안전과 천만민마를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핵보검은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날뛰는 송영무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되고 천하역적이다. 더우며 장관병거지를 뒤집어쓴 다음에는 《참수작전》과 공세적인 《대북군사작전개념》의 수립을 떠들어댄 극악한 친미호전분자이다. 럽대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치고 대결에 광분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송영무처럼 남조선장점미군의 영구주둔과 《북해상봉쇄》와 같은 극악

한 망언을 내뱉으며 망둥이처럼 높아만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떠드는 미국에는 삼살개처럼 아부하고 민족의 안전과 천만민마를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핵보검은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날뛰는 송영무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되고 천하역적이다. 더우며 장관병거지를 뒤집어쓴 다음에는 《참수작전》과 공세적인 《대북군사작전개념》의 수립을 떠들어댄 극악한 친미호전분자이다. 럽대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치고 대결에 광분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송영무처럼 남조선장점미군의 영구주둔과 《북해상봉쇄》와 같은 극악

한 망언을 내뱉으며 망둥이처럼 높아만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떠드는 미국에는 삼살개처럼 아부하고 민족의 안전과 천만민마를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핵보검은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날뛰는 송영무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되고 천하역적이다. 더우며 장관병거지를 뒤집어쓴 다음에는 《참수작전》과 공세적인 《대북군사작전개념》의 수립을 떠들어댄 극악한 친미호전분자이다. 럽대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치고 대결에 광분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송영무처럼 남조선장점미군의 영구주둔과 《북해상봉쇄》와 같은 극악

한 망언을 내뱉으며 망둥이처럼 높아만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떠드는 미국에는 삼살개처럼 아부하고 민족의 안전과 천만민마를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핵보검은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날뛰는 송영무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되고 천하역적이다. 더우며 장관병거지를 뒤집어쓴 다음에는 《참수작전》과 공세적인 《대북군사작전개념》의 수립을 떠들어댄 극악한 친미호전분자이다. 럽대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치고 대결에 광분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송영무처럼 남조선장점미군의 영구주둔과 《북해상봉쇄》와 같은 극악

한 망언을 내뱉으며 망둥이처럼 높아만자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떠드는 미국에는 삼살개처럼 아부하고 민족의 안전과 천만민마를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핵보검은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날뛰는 송영무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되고 천하역적이다. 더우며 장관병거지를 뒤집어쓴 다음에는 《참수작전》과 공세적인 《대북군사작전개념》의 수립을 떠들어댄 극악한 친미호전분자이다. 럽대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치고 대결에 광분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송영무처럼 남조선장점미군의 영구주둔과 《북해상봉쇄》와 같은 극악





자주권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발전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폭제의 핵으로 막아보려는 미국의 침략전쟁도 발과 대조선압박봉쇄의 광란으로 얼룩진 한해가 저물어간다.

돌아보는 이해에 우리 공화국을 《악마화》하여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대조선압박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불안과 우려를 안고 험악하게 번져가는 조선반도의 정세 흐름을 바라보는 세계는 미

# 군국주의어로 질주하는 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치팡이 트럼프패당과 공모하여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공범자 일본에도 경원과 증오의 눈길을 보내고있다.

힘센놈에게 붙어 남을 괴롭히는 고약한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의 삼살개노릇을 하며 군국주의망령이 공공연히 머리를 쳐드는 섬나라를 보면서 우리 민족과 인류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

류언비어로 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분노를 조선인 대학살로 향하게 한 사무라이살인조상들의 수범이라 할 수 있다.

년초부터 년말까지 일본이 《북조선위협설》의 악청을 들은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다.

《북조선핵위협》, 《조선반도위기설》, 《랍치문제해결》과 같은 있지도 않는 날조된 구실로 자국내에서 조선민족중요사상과 군국주의부활기운, 복수주의야망을 증대시켜 군사대국화를 위한 합법적 조건을 마련하며 침략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로 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과 안전이 백악관 늑대리미치팡이가 손에 쥔 악마의 핵, 폭제의 핵에 의해 위협당하는 조선반도의 위험한 정세를 도용하여 군국주의부활의 포석을 깔아보려고 공공연히 날뛰어온 섬나라족속들이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북조선위협설》은 불난 집에 가서 옷을 말린다는 격으로 왜 나라특유의 파렴치성의 표출인 것이다.

할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방위성은 미싸 일방어체계의 정비보강과 록, 해, 항공 《자위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기통합운용계획》과 《적기지공격능력보유》 등을 2018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아베정권은 그에 머무르지 않고 《자위대》를 상실적인 군대로 개편하는 개헌안을 성사시키려 하고있다.

수상 아베와 그의 처가 련관된 국유지혈값매각사건이 터져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일본당국자들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있다》, 《북조선위협에 누가 우리 목숨을 지켜주겠는가》라고 《북조선위협설》의 선전자, 류포자가

되어 침방울을 튀겨대며 첨단 무기개발과 수출, 무장장비수입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결국 《평화헌법》유지라는 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고 일본 《자위대》가 합법적인 군대로 개편되어 조선반도 《유사시》는 물론이고 어느 시각, 어느 나라에 투입되는것은 시간문제라 되어있다.

《평화헌법》개정놀음은 《보통국가》, 《전쟁가능한 나라》가 되어 과거 《아시아의 맹주》의 지위를 다시 찾으려는 일본의 채찍야망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제가 타죽을줄 모르고 불을 향해 돌진하는 전쟁부나비는 대륙재침의 날개를 퍼덕이며 기만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 던지고있다.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평화의 소녀상》설치에 대해 촉각을 도사리며 《항의》를 보내군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것이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한다고 해도 아물수 없는 역사의 상처로 남아있게 될것이 군국주의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죄악이다.

앞수레가 넘어지는것은 뒤수레의 교훈이라는 일본속담도 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북조선위협설》, 《합의리행》을 운운하며 과거죄악을 답습하기 위해 날뛰고있다.

산으로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법이다.

피비린 죄악을 세월의 이끼속에 묻어보려는 좀스러운 속통을 활 들여내지 못한다면 일본은 보편적 인류도덕과 문명, 료리에서 동떨어진 인륜 후진국, 정치난쟁이의 섬나라로 계속 남아있을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국주의어로 질주하는 섬나라 일본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불구대천의 백년속적과는 오직 철저히하고도 무자비한 청산을 해야 한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간주하게 된다.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조선은 한세기전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한 침략군에 화승대와 활과 창으로 맞서던 약소국이 아니며 일본의 40여년의 피비린내나는 식민지 지배와 70여년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의 죄악의 값을 천백배로 받아낼 분노와 증오로 만장약하고있는 동방의 핵강국, 세계의 군사강국이다.

병으로 돌을 치든 돌로 병을 치든 종당에 깨지는것은 무엇이겠는가.

뒤돌아볼줄 모르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서 군국주의부활로 질주하는 불량국가, 패륜국가, 전쟁국가인 섬나라 일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 군국주의부활을 재촉하는 《북조선위협설》

조선반도와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핵역제력을 없애보려고 발악하는 미국의 무분별한 광증에 부채질하며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사악한 세력이 있으니 다름아닌 일본반동들이다.

공화국에 대한 트럼프패당의 전면적인 국가테러기도와 핵위협, 제재압살소동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번져진 올해에 저들의 리속을 쟁겨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교활하고 음흉해졌다.

올해에만도 공화국의 자위적역제력이 한단계씩 상승할 때마다 《북조선핵, 미싸일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미국, 남조선과의 《동맹》강화를 제창하고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는데 광분하였다.

특히 《북조선핵위협설》, 《대화무용론》 등으로 든장질 하면서 동족사이에서 췌기를 더 깊숙이 박으려고 발악하였다.

또한 대조선압박공조를 《주도》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미국의 《제재결의》 조작에 동조하도록 들추서대는가 하면 공화국의 단체, 개인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기업과 기업가들에 대한 독자제재놀음도 벌여왔다.

《북조선위협설》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은 조선반도문제와 하등의 관련이 없고 이미 해결이 된 《랍치

문제》를 들고나왔고 자국내에서 《북조선핵위협, 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주민대피훈련이라는것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유사시》 대량의 북조선피난민설, 전염병설을 류포시키며 자국민들의 공포심리를 극도로 자극시킨것도 그 일환이었다.

일본당국자들이 지난 10월의 중의원선거에서 아베가 이길수 있는것은 《북조선위협설의 덕》이라고 공공연히 말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1923년의 간토탈지진시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는

《보통국가》, 《전쟁가능한 나라》로 되는것은 전범국, 전패국인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종일관 추구해온 야심이다.

《평화헌법》의 개정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짓장을 벗기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10월 중의원선거에서 아베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포기》, 《상설적인 군대보유와 교전권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제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는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국내민심과

세계를 오도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였다.

이미 일본은 2015년에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유사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해외파병 등 군사적활동을 립법화하였다.

올해 년초부터 미국, 남조선, 오스트랄리아 등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온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조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대》의 《방위계획대장》을 대폭 수정

《부끄러울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지난 11월 14일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유엔인권리사회의 권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답이다.

미국 각지에서 벌어지고있는 《평화의 소녀상》설치에 대해서도 일본은 《극히 유감이다》, 《이를 저지할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떠벌이였다.

올해 정초부터 남조선의 부산총영사관앞에 설치되어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고 일본군성노예 《합의》를 리행해야 한다고 어거지를 부려댄 일본이다.

《산끼이신봉》과 같은 극우언론들을 내세워 《소녀상설치는 국제적인 위반행위이다》, 《〈한국〉에 끈질기게 소녀상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귀찮은 나라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로 국제적여

론을 오도해보려고 획책하기도 하였다.

인류최악의 반인륜적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치를 모르는 패륜국, 시효가 없는 반인륜죄악을 몇푼의 돈으로 무마하려는 파렴치한 일본이기에 유엔인권리사회의 사죄권고도 단단디로 거절하게 된것이다.

왜 일본이 한사코 일본군성노예 《합의》에 매달리고 《평화의 소녀상》설치를 반대해나서는가.

전패국, 전범국이 아닌 《보통국가》로 변신하는데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치명적인 락인이고 《평화의 소녀상》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고발하는 《산력사교과서》로 되기때문이다.

하기에 일본은 박근혜 《정권》과 그 잔당들은 물론이고 새로 들어선 현 남조선 《정권》과 《협력》을 운운할 때마다 《북조선위협설》과 함께 《미래지향관계》, 그리고 역적패당이 섞여바친 일본군성노예 《합의》리행을 끼워넣는것을 잊지 않았으며 남조선뿐

## 《평화헌법》의 허울을 벗어던지려고 발악한 한해

《보통국가》, 《전쟁가능한 나라》로 되는것은 전범국, 전패국인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종일관 추구해온 야심이다.

《평화헌법》의 개정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짓장을 벗기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10월 중의원선거에서 아베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포기》, 《상설적인 군대보유와 교전권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제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는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국내민심과

세계를 오도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였다.

이미 일본은 2015년에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유사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해외파병 등 군사적활동을 립법화하였다.

올해 년초부터 미국, 남조선, 오스트랄리아 등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온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조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대》의 《방위계획대장》을 대폭 수정

세계를 오도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였다.

이미 일본은 2015년에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유사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해외파병 등 군사적활동을 립법화하였다.

올해 년초부터 미국, 남조선, 오스트랄리아 등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온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조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대》의 《방위계획대장》을 대폭 수정

## 패륜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패악질

《부끄러울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지난 11월 14일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유엔인권리사회의 권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답이다.

미국 각지에서 벌어지고있는 《평화의 소녀상》설치에 대해서도 일본은 《극히 유감이다》, 《이를 저지할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떠벌이였다.

올해 정초부터 남조선의 부산총영사관앞에 설치되어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고 일본군성노예 《합의》를 리행해야 한다고 어거지를 부려댄 일본이다.

《산끼이신봉》과 같은 극우언론들을 내세워 《소녀상설치는 국제적인 위반행위이다》, 《〈한국〉에 끈질기게 소녀상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귀찮은 나라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로 국제적여

론을 오도해보려고 획책하기도 하였다.

인류최악의 반인륜적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치를 모르는 패륜국, 시효가 없는 반인륜죄악을 몇푼의 돈으로 무마하려는 파렴치한 일본이기에 유엔인권리사회의 사죄권고도 단단디로 거절하게 된것이다.

왜 일본이 한사코 일본군성노예 《합의》에 매달리고 《평화의 소녀상》설치를 반대해나서는가.

전패국, 전범국이 아닌 《보통국가》로 변신하는데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치명적인 락인이고 《평화의 소녀상》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고발하는 《산력사교과서》로 되기때문이다.

하기에 일본은 박근혜 《정권》과 그 잔당들은 물론이고 새로 들어선 현 남조선 《정권》과 《협력》을 운운할 때마다 《북조선위협설》과 함께 《미래지향관계》, 그리고 역적패당이 섞여바친 일본군성노예 《합의》리행을 끼워넣는것을 잊지 않았으며 남조선뿐

론을 오도해보려고 획책하기도 하였다.

인류최악의 반인륜적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치를 모르는 패륜국, 시효가 없는 반인륜죄악을 몇푼의 돈으로 무마하려는 파렴치한 일본이기에 유엔인권리사회의 사죄권고도 단단디로 거절하게 된것이다.

왜 일본이 한사코 일본군성노예 《합의》에 매달리고 《평화의 소녀상》설치를 반대해나서는가.

전패국, 전범국이 아닌 《보통국가》로 변신하는데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치명적인 락인이고 《평화의 소녀상》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고발하는 《산력사교과서》로 되기때문이다.

하기에 일본은 박근혜 《정권》과 그 잔당들은 물론이고 새로 들어선 현 남조선 《정권》과 《협력》을 운운할 때마다 《북조선위협설》과 함께 《미래지향관계》, 그리고 역적패당이 섞여바친 일본군성노예 《합의》리행을 끼워넣는것을 잊지 않았으며 남조선뿐

2017년 5월말 북을 찾았을 때 알고싶었던 핵심명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이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였다.

그렇지만 가져간 명제자체가 무색하리만큼 북이 보여준 변화는 불가사의하게 긍정적이었다.

과연 《사상 전례없는 제재》를 받는 나라인지의 심이 들 정도로 북은 생기가 돌았다.

경제가 상승세를 랐다는 북학자들의 말뜻을 도처에서 감지할수 있었다.

11월초 다시 북을 다녀왔다.

후독한 제재가 겹쳐서인지 초겨울이였지만 평양날씨는 유난히 추운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이 초유의 《후독한 제재》속에 북이 과연 얼마나 버틸가라는 명제를 다시 꺼냈다.

지난 9월 3일 북이 6차

핵시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혹》하리만큼 북을 압박해왔기때문이다.

마침 이번 방문기간 무려 45년만이라는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수천명의 전국사회과학자들이 운집한 현장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와 만세소리, 열광적인 구호소리를 들으며 북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가할수록 결속력이 강화되고 적대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증폭되지 않는가고 생각하였다.

바깥세상에서는 당장 북이 며칠 버리지 못하고 무너질것 같이 요란히 떠들지만 정작 북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북전문가들에게 국제사회의 새로운 고강도제재에 얼마나 버틸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제재를 받지 않으며 살아온적이 언제 있었느냐고 되물으면서 수십년동안 제재를 받으며 왔다고 하였다.

핵개발을 하기에 제재를 받는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재로 자기들의 안보를 위협하기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논리를 폈다.

평양은 날씨가 초겨울답지 않게 추웠던것외에는 5월말과 크게 달라진것이 없었다.

아직 경제가 동요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북이 《신》이 아닌 이상 장기적인 고강도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는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북이 이에 대비한 자구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것이다....

군수공업의 선진기술을 경공업에 이양하면서 경공업제품의 국산화를 대폭 증가시키고있다.

결국에는 2020년까지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식량은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얼마나 버틸가?

북사람들의 담담한 표정에서는 분명히 계속 버티어나갈것이라는 저력이 느껴졌다.

떠나기 전날 평양에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졌다. 다시 강추위가 물려올 징조이다.

그렇건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푸근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7년 12월 4일부터 실린 글)

서울에서 리명박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민주당 리명박 구속4차방비리제산환수특별위원회(MB특위)가 3일 리명박역도를 구속하고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뒤면에는 《악페종의 악페 리명박구속!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하면서 고무해주었다. 이어 그들은 투쟁에 합세해나선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고 리명박역도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리명박이가 저지른 온갖 죄행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하였

으나 파소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경찰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질의서를 발표하여 역도의 죄행을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서울시내에 리명박역도의 구속과 재산몰수를 요구하는 삐라 살포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민주당 리명박 구속4차방비리제산환수특별위원회(MB특위)가 3일 리명박역도를 구속하고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뒤면에는 《악페종의 악페 리명박구속!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장을 서울시내에 뿌리였다. 삐라의 앞면에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처박힌 리명박, 김관진, 원세훈 리명박역도를 구속하라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뒤면에는 《악페종의 악페 리명박구속!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인쇄되어있었다. 단체는 지하철도역의 100여곳과 주택지구, 상점건물들과 도로주변의 수백개 장소에 삐라를 살포하였다.

초불투쟁으로 《정권》을 교체하였으나 리명박과 그 매거리들이 여전히 활발하고있는데 대한 민중의 분

서울에서 리명박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민주당 리명박 구속4차방비리제산환수특별위원회(MB특위)가 3일 리명박역도를 구속하고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뒤면에는 《악페종의 악페 리명박구속!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하면서 고무해주었다. 이어 그들은 투쟁에 합세해나선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고 리명박역도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리명박이가 저지른 온갖 죄행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하였

으나 파소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경찰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질의서를 발표하여 역도의 죄행을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서울시내에 리명박역도의 구속과 재산몰수를 요구하는 삐라 살포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민주당 리명박 구속4차방비리제산환수특별위원회(MB특위)가 3일 리명박역도를 구속하고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뒤면에는 《악페종의 악페 리명박구속!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장을 서울시내에 뿌리였다. 삐라의 앞면에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처박힌 리명박, 김관진, 원세훈 리명박역도를 구속하라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뒤면에는 《악페종의 악페 리명박구속! 수습조 4차방비리제산 환수!》 라는 글이

인쇄되어있었다. 단체는 지하철도역의 100여곳과 주택지구, 상점건물들과 도로주변의 수백개 장소에 삐라를 살포하였다.

초불투쟁으로 《정권》을 교체하였으나 리명박과 그 매거리들이 여전히 활발하고있는데 대한 민중의 분